

햇불 행진·고고나이트...총장축제, 시민 주도형으로

5~9일 '총·장·발·光'...5m 높이 장작 태우기 등 '불' 주제 오늘 개막식 인순이·코요태·이승환 밴드·김정민 등 출연 음악다방·옥상 캠핑·드론쇼...상인들이 시민 배우로 참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시민 주도형 축제로 치러진다. 광주시 동구는 5일부터 9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총·장·발·光(광)'을 주제로 총장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축제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축제'에 방점을 뒀다.

축제 감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총감독으로 활동한 김태욱 감독이 맡았다. 축제는 '불'을 이용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금남로에는 시민들의 추억을 적은 양초를 모아 두는 '추억 정원'이 조성되고, 7일 오후 2시에는 도심에서 폭죽 수전발을 터뜨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하는 '마스플레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일 열리는 메인 퍼레이드에서는 햇불을 들고 행

진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시민들도 햇불을 직접 구입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퍼레이드 이후 금남로 한가운데서 5m 높이로 쌓아올린 장작과 함께 무료로 만든 상징 조형물을 불태우는 행사도 열린다. 김태욱 감독은 "축제에서 불은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새로운 문화·소통적 코드를 마련하는 장치로서 작동한다"며 "불 앞에 모여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개인의 추억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축제에서 새로 도입한 콘텐츠들도 다채롭다. 총장로 폐점포 세 곳을 활용해 추억의 음악다방, DJ다방, 조선대 미대 쇼케이스 등 팝업스토어를 마련하고, 총장로 4가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두 커플의 사연을 받아 거리 결혼식

'인생 최고의 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광주YMCA, 금남빌딩, 총장22 등 건물 옥상에는 '하늘 놀이터'가 마련돼 옥상 캠핑, 추억의 영화 관람, 스탠딩 PUB 등을 즐길 수 있다. 총장로 1~5가,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는 춤판, 놀이판, 노래판이 이어진다. 5일 오후 7시 개막식 공연에는 인순이·이승환 밴드·코요태·김정민 등 가수가 출연하며, 추억을 주제로 한 드론 쇼도 펼쳐진다. 세발자전거대회, 추억의 롤러장, 복싱대회 등이 열리며 야간에는 도심에서 모닥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총장로 상인들이 시민 배우가 돼 총장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총장 낭만 관광사'도 즐길거리다.

6일 밤에는 시대별 클럽 DJ가 출연하는 '추억의 고고나이트'를 열고, 7일에는 '제2회 버스커즈 월드컵' 결선 무대를 통해 세계 거리음악가들의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다. 9일 폐막식에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광주 동·서·북·광산구 등 4개 구립 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광주남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국악인 김삼옥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선연을 맞은 만큼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총장축제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며 "10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즐거움이 곧 '총장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명절 쓰레기 산더미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일대에서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이념 논란' 광주 정율성 흉상 복원 고심

광주시 남구 등이 정율성 흉상(10월 4일자 광주일보 6면) 복원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관련 보존단체에서 제기한 이념논란에 휘말릴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 남구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훼손된 흉상을 천으로 덮어두고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에 흉상을 기증한 남광주청년회의소도 흉상 복원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들은 "중국어에서 문화교류, 우호증진의 의미로 준 흉상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 정치적 이념 논란이 불거졌던 흉상에 관여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

다고 한다. 남광주청년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정율성 이념 논란이 일었던 만큼 흉상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남광주청년회의소는 비영리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하지만 논란이 일고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관리주체인 남구는 이보다 한 발 더 물러서는 입장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남구인 것은 맞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면 법에 의거해 결정하겠다"며 "직접 기증한 단체인 남광주청년회의소가 복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킬러 문항' 배제 첫 모평, 수학 만점 2520명 달해

지난해보다 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져...영어 1등급 3.46% 급감

정부의 방침으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첫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이 2520명에 달할 정도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비해 킬러 문항이 없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달리 수험생들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6일 실시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42점이다. 작년 수능 당시(134점)보다 8점 올랐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 이상이면 어려운 수능, 135점 이하면 쉬운 수능으로 평가한다. 작년 수능에서 국어는 평이한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부와 평가원, EBS, 입시업체들이 일제히 킬러 문항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음에도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는 뜻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수험생은 135명으로 집계돼 작년 수능(371명)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커트라인(등급 컷)은 126점에서 130점으로 상승했다. 수학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작년 수능(145점)보다 1점 하락했다. 특히 킬러 문항 배제로 4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인원은 2520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2.7배로 급증했다. 1등급 컷은 작년 수능(133점)보다 2점 오른 135점이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2점으로 줄었다. 작년 수능에서는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국어보다 11점 높아 수학을 잘하는 수험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시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영어 영역에서는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4.37%를 기록, 작년 수능(7.83%)보다 3.46%포인트 하락했다. 영어에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이 비율은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최솟다. 수능, 6월·9월 모의평가를 통틀어 보면 2019학년도 6월(4.19%) 이후 가장 적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7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 선정

'오월 어머니의 노래' 총 감독 고(故) 김동찬씨 등 2명

(사)오월어머니집이 제17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오월어머니상은 5·18 당시 또는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오월정신 계승에 공로가 인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개인상은 '오월 어머니의 노래' 총감독인 고(故) 김동찬씨와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자문위원이자 한국어주여성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인 서영숙씨 2명이 선정됐다. 김씨는 1995년부터 광주오월을 주제로 한 문화 활동과 음악 공연 기획을 통해 5·18 정신을 계승한 5·18문화 활동가다. 생전에 오월어머니들의 삶과 한이 담긴 음반 '오월 어머니의 노래'의 총지휘와 연출을 맡기도 했다. 중국 조선 동포 출신 결혼이주여성인 서씨는 광주시 최초로 결혼이주여성인 주도하는 '국제이주문화연구소'를 설립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

통을 실천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단체상은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홍)가 수상자다. 오월어머니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린다. 개인상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 단체상 수상단체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故) 김동찬씨 서영숙씨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 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성능저하 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최 | 남부대학교 | 후원 | 광산문화원

제33회 배동신 아동미술제 2023.10.4~10.5

공모분야

| 공모분야 | 장르 | 제출규격 | 비고 |
|------|-----------|-------------------------------------|-----------------------------|
| 회화 | 평면 | 30호~50호 | |
| 서예 | 한글(영어·그림) | 70cm×135cm [전지] 70cm×200cm [국전지] | 당선 작품 출자는 참가자 부담으로 일괄 제작 예정 |
| 문인화 | 문인화 | 70cm×135cm[전지] | |

※ 서각, 전각, 조각, 설치미술은 공모대상 아님.

시상식 및 전시회
- 일시: 2023. 11. 16(목) 14:00
- 장소: 소은아트백러리 큐비미술관

추천·초대작가 지정서 발급
- 추천작가: 수상점수 합계가 13점 이상 특별한 출품자
- 초대작가: 추천작가로서 연속 5회 또는 10회 이상 출품자
- 수상점수: 대상7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4점, 특선상 3점, 입선1점

시상내역

| 구분 | 회화 | 서예·문인화 |
|-------|-------------------------------------|----------------------------------|
| 배동신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 광주광역시시장상 2명 / 시상금 300만원 / 개인전 개최 |
| 이름대상 | 광산구청장상 (3명) / 시상금 100만원 | |
| 최우수상 | 광산구청의회장상 (4명) / 시상금 30만원 | |
| 우수상 | 광산문화원장상 (10명) / 시상금 10만원 | |
| 특선상 | 광산문화원장상 (여간) | |

※ 개인전 개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공표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선 작품 유출 없음
단, 광산문화원 배동신미술제 수상자, 전시회 개최 및 도록 제작에 필요한 작품의 저작권 전속(공표권, 판매권, 복제권) 등이 사용됨.

유의사항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시 이메일로 발송 후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
- 타 대회 수상작을 제출하거나, 실제 작품이 제출한 이미지 파일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
- 공모요강 및 타인의 작품을 모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상은 자동취소되며, 상금 및 시상금 반환
- 전시회 및 시상식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문의
- 광산문화원 Tel. 062)941-3377
(62421)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http://gijwangan.kcct.or.kr/

주최 | 광산구 | 후원 | 광산문화원 | 광주광역시 | 광산구의회